



중소기업청, 1230억 규모 수급기업 ABS 발행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발행하기로 한 총 2,8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제1차 발행분 1,230억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9월 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기업투자펀드는 지난 중기특위 확대회의(1.17)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대책(5.16)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간 구매협력약정의 체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수급기업에 대해 설비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국산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선순위채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중순위채권 I 은 KTB 자산운용(메자닌 펀드)에, 중순위II는 지원대상 업체에 매각되며 후순위채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한다.

중소기업청은 ABS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향후 지원대상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 대주주의 자금유용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서상의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청주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유망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9월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육성기금 30억원과 이차보전자금 50억원 등 총80억원이 지원된다. 육성기금 30억원 중 ▶벤처·유망중소기업을 비롯한 특허, 실용신안, NT마크나 KT마크 등 1건이상 획득한 기업의 경우 금리 3.0%, 업체당 1~2억원 이내, 2년 이내 전액일시상환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금리 3.5%, 2억원이내, 2년이내 전액일시상환의 융자조건이 적용된다. 경영안정자금 희망업체는 ▶융자 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수출실적증명, 품질인증서, 규격표시, 사업재산권, 행정기관 포상내역 사본)등 각부를 구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청주시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를 거쳐 9월 30일 해당업체에 융자결정 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자금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개발 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1,343업체에 904억원의 '기술혁신개발사업비'가 지원(출연)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정부에서 지원(출연)하는 사업으로, '일반과제' 부문(1년, 1억원 한도)과 신산업 창출 및 성장유망품목 등 정부정책반영을 위해 공모과제를 지원하는 '전략과제' 부문(2년, 3억원 한도)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경기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경기도에서는 장비 및 연구 인프라 등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113억원(국비 47.5억원과 도비·기업 각각 3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앙정부·경기도·대학·중소기업이 참여하며, 대학이 7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국비 50%, 도비25%, 기업25%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진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현장애로기

술과 신기술사업으로 구분하여 현장애로 기술과제는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 이내, 신기술 개발과제는 5000만원 이내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75%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여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39개 대학에서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76개과제가 선정됐으며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3개 대학은 산학협력실 특성화대학으로 중기청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별도 국비만의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은행,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1조원 지원

우리은행(은행장 황영기 www.wooribank.com)은 경기회복 지원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석특별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조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자금지원은 물론 저점장 금리전결권 상향조정을 통해 최대 2.69%의 금리우대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 및 재약정 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은 중소 제조업체, 영세중소기업(SOHO), 기

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을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B2B대출, 할인어음, 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제조업과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블록 마케팅 체제를 도입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공장 및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최고 100%까지 상향조정했으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유예 등 특별대책을 금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시설자금 2,800억원 추가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군섭)은 8월 10일부터 총 2,800억원 규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은 기업체들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리 2~3%대의 저리로 최소 8년부터 최대 15년의 장기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6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이 5월에 조기 종료돼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여 결정됐다. 추가자금 중 2,000억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통해 이뤄지고 800억원은 올해 이미 지원이 완료된 총 7,770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신청자가 포기하거나 추천이 취소된 자금으로 충당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